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1. 11. ~ 01. 17.

전남농업정보

68

VOL

- | 주간 기상전망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 전망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정책동향
- | 해외 농업정보
-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딸기 · 토마토 · 고추 · 오이 등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9

- ▶ 과채류 지난 12월 ~ 금년 2월 정식의향 큰 폭의 증감 없어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 전망 12

- ▶ 도 · 소매 농산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6

- ▶ 순천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순회교육 실시
- ▶ 보성군, 신소득작목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
- ▶ 첨단농업실현... 미래로 가는 농촌
- ▶ 화순군, 명품 농산물 생산 농업인 실용 교육
- ▶ 까망누리 흑염소고기 맛있어요
- ▶ 완도군, 축산분야 바이오기능수 효과 실증 완료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3

- ▶ 국산 유기농 홍차로 호주에서 최고상 수상
- ▶ 2015년 12월 국제 쌀 시장동향
- ▶ 농협, 중국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와 MOU 체결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7

- ▶ 겨울철 시설원에 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 ▶ 에너지절감형 '측면온수커튼기술'
- ▶ '수박 2줄기 방임재배' 노동력을 77%나 줄일 수 있는 기술
- ▶ 기능성 갯기름나물(식방풍)의 유기재배 기술개발
- ▶ 사시사철 기를 수 있는 벼메뚜기 사육방법 책으로 엮어

❁ 정책 동향 34

- ▶ 전남도, 농업 6차산업화 수출기반 확대 총력
- ▶ 농식품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마련
- ▶ 농촌진흥청, 전국 30만 명 농업인 대상 실용 교육
- ▶ 배 주산지 대상, 순회사랑방 기술 교육 나선다

❁ 해외 농업정보 40

- ▶ 미국, 2016년 식료품 소매시장 전망
-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분쇄물에 대한 이력추진제 실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1. 1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초 하락한 가격으로 투자자들의 숏커버링세가 상당히 몰리며 상승세가 지속됨.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었가 매입과 세계 주식시장 지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반등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정부의 곡물 보고서 발간 전 투자자들의 스케어포지션으로 기술적 매입세와 숏커버링세가 몰리며 강보합 마감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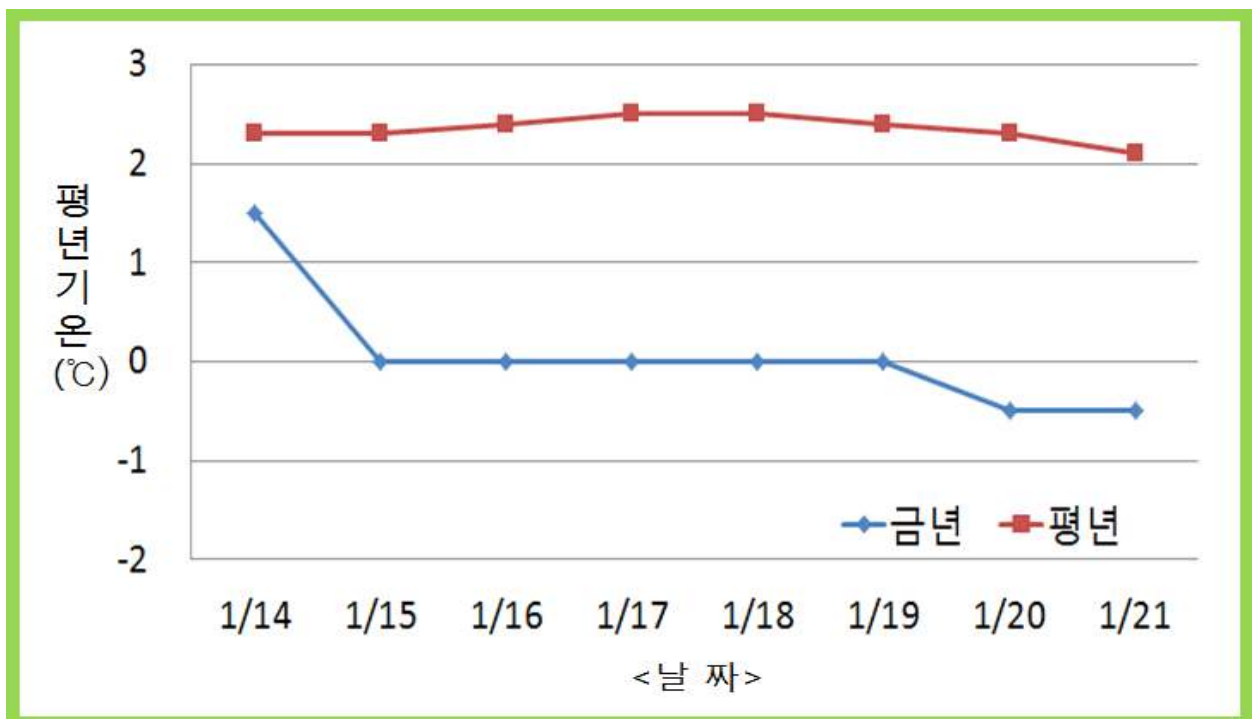
- ▶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
- ▶ 전남도,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일제 실시
- ▶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한자리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0.1	0.6	-0.5	3.3	5.3	-2.0	-3.1	-3.1	0.0	1.5
1. 14.(목)	1.5	0.6	0.9	5.0	5.0	0.0	-2.0	-3.1	1.1	1.4
1. 15.(금)	0.0	0.5	-0.5	3.0	5.1	-2.1	-3.0	-3.2	0.2	1.3
1. 16.(토)	0.0	0.6	-0.6	4.0	5.3	-1.3	-4.0	-3.2	-0.8	1.5
1. 17.(일)	0.0	0.7	-0.7	3.0	5.5	-2.5	-3.0	-3.1	0.1	1.6
1. 18.(월)	0.0	0.7	-0.7	3.0	5.5	-2.5	-3.0	-3.0	0.0	1.4
1. 19.(화)	0.0	0.6	-0.6	3.0	5.5	-2.5	-3.0	-3.1	0.1	1.3
1. 20.(수)	-0.5	0.6	-1.1	2.0	5.3	-3.3	-3.0	-3.0	0.0	1.5
1. 21.(목)	-0.5	0.5	-1.0	3.0	5.0	-2.0	-4.0	-3.2	-0.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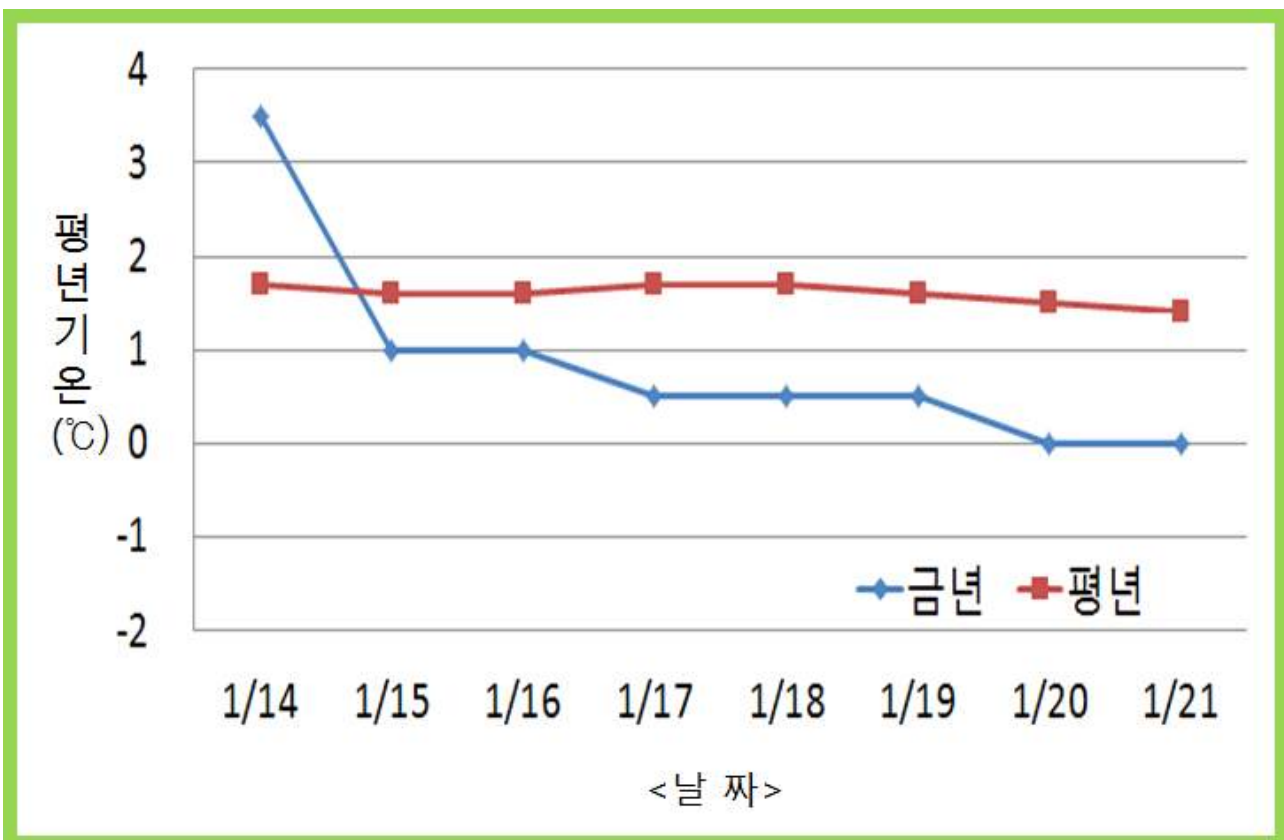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0.9	1.6	-0.7	3.6	6.0	-2.4	-1.9	-1.6	-0.3	1.3
1. 14.(목)	3.5	1.7	1.8	6.0	5.9	0.1	1.0	-1.4	2.4	1.1
1. 15.(금)	1.0	1.6	-0.6	4.0	5.9	-1.9	-2.0	-1.5	-0.5	1.1
1. 16.(토)	1.0	1.6	-0.6	5.0	6.0	-1.0	-3.0	-1.6	-1.4	1.2
1. 17.(일)	0.5	1.7	-1.2	3.0	6.1	-3.1	-2.0	-1.6	-0.4	1.2
1. 18.(월)	0.5	1.7	-1.2	3.0	6.1	-3.1	-2.0	-1.5	-0.5	1.3
1. 19.(화)	0.5	1.6	-1.1	3.0	6.1	-3.1	-2.0	-1.6	-0.4	1.4
1. 20.(수)	0.0	1.5	-1.5	2.0	5.9	-3.9	-2.0	-1.6	-0.4	1.6
1. 21.(목)	0.0	1.4	-1.4	3.0	5.8	-2.8	-3.0	-1.7	-1.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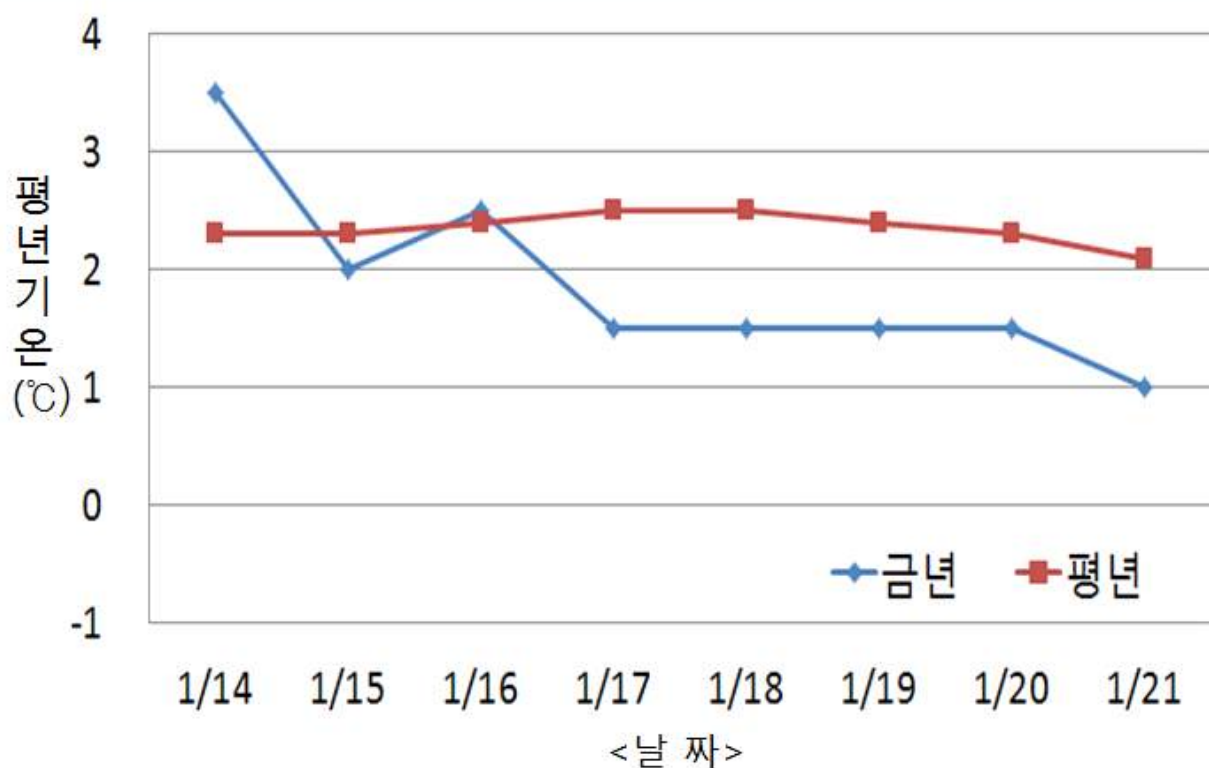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9	2.4	-0.5	4.6	6.1	-1.5	-0.9	-0.4	-0.5	0.9
1. 14.(목)	3.5	2.3	1.2	6.0	5.9	0.1	1.0	-0.8	1.8	0.9
1. 15.(금)	2.0	2.3	-0.3	5.0	6.0	-1.0	-1.0	-0.8	-0.2	1.0
1. 16.(토)	2.5	2.4	0.1	6.0	6.2	-0.2	-1.0	0.7	-1.7	1.0
1. 17.(일)	1.5	2.5	-1.0	4.0	6.3	-2.3	-1.0	0.6	-1.6	0.9
1. 18.(월)	1.5	2.5	-1.0	4.0	6.2	-2.2	-1.0	-0.6	-0.4	0.8
1. 19.(화)	1.5	2.4	-0.9	4.0	6.3	-2.3	-1.0	-0.7	-0.3	0.8
1. 20.(수)	1.5	2.3	-0.8	4.0	6.1	-2.1	-1.0	-0.8	-0.2	0.9
1. 21.(목)	1.0	2.1	-1.1	4.0	5.9	-1.9	-2.0	-1.0	-1.0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제1호/2016.1.1.~1.31.)

농촌진흥청은 딸기·토마토·고추·오이 등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1월 중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시설 채소작물의 잿빛곰팡이병·균핵병·노균병·역병 : 주의보

- 적절한 보온과 환기로 병 발생을 억제하고 병 걸린 잎과 과실을 일찍 따주고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 토마토황화잎말림병(담배가루이)·토마토반점위조병(총채벌레)

- 토마토·고추 등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바이러스병으로 병을 매개하는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를 적용약제로 초기에 방제, 병에 걸린 식물은 즉시 제거.

□ 총채벌레류·응애류·진딧물·담배가루이·온실가루이

- 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은 연중 발생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발견이 어려워 초기 발생을 몰라 피해를 입기 쉬우니 끈끈이트랩을 활용하여 주의 깊게 예찰을 하여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 살포.

□ 검역병해충 : 딸기세균모무늬병·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

- 검역병해충인 이 병들은 모주와 적심작업 등을 통해서 전염되므로 건전한 모주를 사용하고 병이 걸린 포기는 즉시 제거.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과채류 지난 12월 ~ 금년 2월 정식의향 큰 폭의 증감 없어

□ 지난 12월 ~ 금년 2월 정식면적 전망

- 일반토마토 · 원형방울토마토 · 백다다기오이 금년 1~2월 정식의향은 지난해 보다 증가.
- 청양계꽃고추 · 취청오이 · 시설수박 지난 12월 ~ 금년 2월 정식면적은 2014년과 비슷할 듯.
- 애호박 · 녹광꽃고추 지난 12월 ~ 금년 1월 정식의향은 2014년 수준, 금년 2월은 애호박 증가, 녹광 감소.
- 참외 금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하고, 정식시기 빨라질 전망.

□ 과채류 지난 12월 ~ 금년 2월 정식의향 면적 2014년 대비 증감률(%)

구 분	일반 토마토	원형 방울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백다다기 오이	취청 오이	애호박	청양계 꽃고추	녹광 꽃고추	시설 수박
12월	-0.2	0.7	-1.2	0.8	0.1	-0.2	0.2	-0.2	-0.1
금년 1월	0.7	0.8	-1.6	0.9	-0.1	-0.1	0.1	-0.1	-0.1
금년 2월	0.6	0.7	-1.0	0.7	0.0	1.2	0.1	-1.2	0.2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1. 1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11)	1주일전 (01/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800	41,400	42,267	↓ -12.6	↓ -14.4
	콩(백태)	35kg	149,000	148,400	147,400	139,000	183,650	↑ 7.2	↓ -18.9
	고구마(밤)	10kg	25,400	22,800	22,360	22,600	25,307	↑ 12.4	↑ 0.4
	감자(수미)	20kg	27,800	26,000	25,600	23,000	28,587	↑ 20.9	↓ -2.8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	420	420	-	-	-	-
	양배추	10kg	4,100	4,000	3,660	5,000	7,493	↓ -18.0	↓ -45.3
	오이(다다기계통)	10kg	33,000	31,333	42,867	38,167	38,078	↓ -13.5	↓ -13.3
	애호박	8kg	26,400	23,400	28,520	25,450	26,767	↑ 3.7	↓ -1.4
	토마토	10kg	25,600	22,600	20,360	26,950	32,780	↓ -5.0	↓ -21.9
	당근	20kg	20,200	20,200	20,120	12,750	17,533	↑ 55.5	↑ 11.8
	건고추(화건)	60kg	776,000	786,000	804,400	830,000	879,600	↓ -6.5	↓ -11.8
	풋고추	10kg	32,800	35,600	32,960	55,250	60,503	↓ -40.6	↓ -45.8
	마늘(깐마늘)	20kg	147,000	143,000	141,000	93,750	109,850	↑ 56.8	↑ 33.8
	양파	20kg	33,200	34,200	35,000	10,400	16,993	↑ 219.2	↑ 95.4
	대파	1kg	1,970	2,050	1,964	1,255	1,634	↑ 57.0	↑ 20.6
	파프리카	5kg	33,800	25,800	18,560	30,200	31,873	↑ 11.9	↑ 6.0
	멜론	8kg	29,400	28,400	27,000	41,600	41,941	↓ -29.3	↓ -29.9
	방울토마토	5kg	16,800	16,600	10,480	17,350	20,127	↓ -3.2	↓ -16.5
	수박	1개	21,000	21,200	16,040	16,500	14,237	↑ 27.3	↑ 47.5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6,800	35,800	36,320	36,934	52,742	↓ -0.4	↓ -30.2
	배(신고)	15kg	43,800	43,800	43,600	35,200	45,333	↑ 24.4	↓ -3.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11)	1주일전 (01/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34,000	514,000	561,667	↑ 2.9	↓ -5.8
	느타리버섯	2kg	10,600	11,200	11,920	11,800	11,880	↓ -10.2	↓ -10.8
	새송이버섯	2kg	7,800	8,000	8,440	7,850	8,960	↓ -0.6	↓ -12.9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16	7,850	7,714	6,286	6,172	↑ 22.7	↑ 25.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66	1,747	1,983	1,879	1,684	↓ -0.7	↑ 10.8
	닭고기	1kg	5,141	5,740	5,162	5,296	5,322	↓ -2.9	↓ -3.4
	계란(특란)	30개	5,596	5,275	5,291	5,976	5,678	↓ -6.4	↓ -1.4
	우유	1리터	2,548	2,550	2,550	2,548	2,386	- 0.0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1. 1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66 천원	5,782 천원	4,571 천원	↑ 1.5	↑ 28.3
	거세	7,013 "	6,528 "	5,119 "	↑ 7.4	↑ 37.0
송아지 (6~7월)	암	2,630 "	2,617 "	1,809 "	↑ 0.5	↑ 45.4
	수	3,202 "	3,134 "	2,311 "	↑ 2.2	↑ 38.6
육우(600Kg)		3,620 "	3,454 "	3,468 "	↑ 4.8	↑ 4.4
젖소수송아지(7일령)		203 "	205 "	38 "	↓ 1.0	↑ 434.2
돼지(110kg)		341 "	317 "	351 "	↑ 7.6	↓ 2.8
육계(원/kg)		1,588 원	1,660 원	1,643 원	↓ 4.3	↓ 3.3
계란(원/특란10개)		997 "	1,017 "	1,301 "	↓ 2.0	↓ 23.4
오리(원/kg)		1,667 "	1,833 "	2,667 "	↓ 9.1	↓ 37.5

※ '14년 경연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 전망

□ 소매, 채소류/상추(적), 2016-01-08, 대전

- 주산지는 충남 논산·대전·충북 옥천 등지임.
- 고가거래로 소비량이 적고 겨울철 비수기로 일반 대중음식점 등 소비량이 적어 내림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00원/100g 하락한 상품 800원, 중품 700원선에 거래됨.
- 겨울철 비수기로 당분간은 약보합세에 거래될 전망이다.

□ 소매, 채소류/상추(적), 2016-01-08, 광주

- 광주광역시·장성·담양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산지 기상회복과 기온 상승 영향으로 시장내 반입량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방학과 연휴이후 거래가 부진하여 약세.
- 도매가격은 적상추 4kg당 상품 36,000원, 중품 32,000원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산지 기상호조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약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오이(가시계통), 2016-01-08, 부산

- 경남 진주·함안·의령 등지에서 주로 반입됨.
- 주말을 앞두고 유통업체 및 소매상의 주문량은 소폭 감소하나 수확주기가 지나면서 시장내 반입량이 감소하여 강보합세.
- 도매가격은 가시오이 10kg당 상품 33,000원, 중품 30,000원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산지 기상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약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오이(가시계통), 2016-01-08, 대구

- 경북 함안·칠곡·창원지역에서 출하됨.
- 산지 일기불순 영향으로 생육이 원활치 못해 공급물량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0kg 기준 2,000원 오른 상품 32,000원, 중품은 27,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출하가 고르지 못해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호박(애호박), 2016-01-08, 대구

- 경북 고령·안동·예천지역에서 출하됨.
- 시장 내 반입물량도 꾸준하고 신규소비요인이 없어 내림세에 거래됨.
- 소매가격은 1개 기준 200원 내린 상품 1,500원, 중품은 1,1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꾸준한 소비가 예상되어 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무(월동), 2016-01-08, 서울

- 제주시 등지에서 반입됨.
- 제주지역 출하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출하물량의 상품성 및 선호도 하락과 소비수요 부진으로 내림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8kg기준 1,000원 내린 상품 10,000원, 중품 8,000원에 거래됨

□ 소매, 채소류/풋고추(청양고추), 2016-01-08, 광주

- 광주광역시·경남 진주 등지에서 반입됨.
- 잦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반입량이 감소했으며, 각종 음식의 부재료로써 꾸준한 소비가 지속되고 있어 강보합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00g에 100원 오른 상품 1,000원, 중품 9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약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붉은고추, 2016-01-08, 서울

- 경남 진주·전남 나주·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주 반입됨.
-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생육부진과 산지출하작업의 어려움으로 주말거래처 고품질 상품 구매경쟁으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0kg 기준 5,000원 오른 상품 45,000원, 중품 35,000원에 거래됨.
- 향후 가격은 반입량이 회복되면 약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미나리, 2016-01-08, 부산

- 경남 밀양·김해·양산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기온상승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학과 주말을 앞두고 소비가 한산하여 약세.
- 도매가격은 20kg당 상품 70,000원, 중품 65,000원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일조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약보합세 전망.

□ 도매, 과일류/감귤, 2016-01-08, 부산

- 제주·서귀포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금년 생산량 증가와 가격 약세로 산지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장시간 보합세를 유지.
- 도매가격은 10kg당 상품 15,000원, 중품 12,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가정 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순회교육 실시

- 순천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생산자 기초자료를 토대로 직매장에 농산물 출하 의향이 있는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출하 시스템에 대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기별·품목별 생산 농가를 조직화 하여 오는 4월에 개장 예정인 순천만국가정원 직매장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조직화된 농가의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향후 토양,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순천시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시는 이번 생산자 조직화 교육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모집해 온 순천로컬푸드(주)의 시민주주 모집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순천시는 로컬푸드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9억원 중 시 출자금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주주모집을 진행했으며 현재 4억원을 확보했다.
- 시는 이번 주주모집 설명회를 통해 소액 민간 주주를 다수 모집해 나머지 1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법인 설립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로컬푸드의 성공여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에 달려 있음에 따라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순천시

■ 보성군, 신소득작목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집중 육성으로 신소득작목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기능성 틈새 소득작목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벌교읍·득량면·회천면·웅치면 등 12농가를 중심으로 8.5ha의 꾸지뽕 단지를 조성하여 신품종을 보급하고, 꾸지뽕나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꾸지뽕의 안정적인 수급 및 재배환경을 조성했다.
- 꾸지뽕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자원으로 5~6월에 꽃 피고, 빨간 열매는 9~10월에 수확한다.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잎·줄기·뿌리·열매 등 모든 부위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항암·항당뇨·고혈압·고지혈·부인병 등에 효과가 알려져 있어 대체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 특히 뽕나무와 달리 병충해에 유독 강해서 농약 없이도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여 천혜의 유기 농산물로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꾸지뽕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보성군 특산품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신소득작목 기반구축 및 나아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현재 10ha에서 꾸지뽕이 재배되고 있으며, 확대 보급하여 주산단지 조성과 함께 즙·차·효소·와인·장아찌 등 다양한 가공품을 연구·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출처 : 보성군

■ 첨단농업실현... 미래로 가는 농촌

- ‘스마트 팜’ 시대, 보성군의 농업은 밝다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득량면 해평리에 위치한 0.5ha 면적의 완숙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설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했다.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작물의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하우스 창문개폐, 양액 투입조절, 차광 및 송풍기 운전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특히 시설원예 분야 ICT 사업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은 물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시설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 이번 사업을 추진한 시설원예 농가는 “농장 관리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급작스레 비가 오거나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하우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사람의 기준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토마토 기준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생산량도 작년보다 16%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올해에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FTA에 대응하고 첨단농업 시대를 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구축한 ICT 융복합 확산농가 통합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컨설팅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및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명품 농산물 생산 농업인 실용교육

- 토마토·복숭아·블루베리 등 11개 과정 1,050명 대상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201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행한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농업인이 한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1개 과정 22회에 걸쳐 화순군민 1,0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 이번 교육은 FTA 및 쌀 관세화 등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된 농업시책을 비롯해 생산비 절감 기술,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12일 고품질 벼·고추 재배기술을 시작으로 복숭아·블루베리·토마토·작두콩 등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식 전문교육으로 진행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로 농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며 “고품질 재배기술과 농가 경영개선 유통교육 등 다각적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명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육일정 및 기타 궁금한 내용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역량개발담당(061-379-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 까망누리 흑염소고기 맛있어요

- 할인판매 · 통신판매 확대 등 소비촉진 위해 다각적 노력 -

- 전남 강진군과 흑염소협회는 최근 건강축종으로 뜨고 있는 흑염소 고소득 창출을 위해 「강진군이 인증하는 흑염소고기 시식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 11월, 흑염소 정육이 강진읍농협 파머스마켓에 입점했으며 흑염소고기의 일반 대중 소비촉진과 흑염소사육농가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앞장서기로 했다.
- 지난 24일 강진군 파머스마켓에서 열린 까망누리 흑염소고기 시식회는 성황을 이뤘다. 새마을회와 읍면새마을협의회장단 50여명은 시식회에 참석해 강진군 흑염소협회 공동브랜드 「까망누리」 홍보에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강성재 강진군새마을회장은 “흑염소산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축산물 중 하나인 만큼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장들이 강진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흑염소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참석자들은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연한 강진산 흑염소고기를 시식하면서 “흑염소농가들이 고품질로 승부한다면 경쟁력은 물론 고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소비자신뢰를 쌓아 가며 안전한 흑염소 고기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송근오 강진군흑염소협회장은 “협회에서 흑염소고기의 대중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판매와 시식회 등 홍보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흑염소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소비대책에 여러 기관·단체가 함께해준다면 우리 흑염소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 흑염소협회에서는 파머스 판매장에서 흑염소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통신판매 확대 등 흑염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완도군, 축산분야 바이오기능수 효과 실증 완료

- 이뮤노글로불린G · HDL콜레스테롤 · 동맥경화 등에 효과 입증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인 농수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완도자연그대로』 축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은 『완도자연그대로』 축산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65대와 생균제 9.1톤을 축산농가에 공급했다.
- 바이오기능수는 가축의 생체 활성화 및 면역력 증가, 사료효율 증대, 증체율 개선 효과가 있다.
- 그 결과, 전신면역을 담당하는 이뮤노글로불린G의 혈액내 함유량이 비급여 개체대비 216%,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혈액내 함유량이 113%로 바이오기능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실증됐다.
- 또한, 바이오기능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 한우 농가에서는 송아지 설사 감소 및 폐사 감소,

악취 감소, 눈빛건강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결과로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축산 육성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은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군은 바이오기능수와 생균제 공급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의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과 고품질의 청정한우를 생산해 한우를 완도의 또다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며 “바이오기능수를 통해 동물의 생체면역력 증진으로 질병예방 및 자연치유능력을 극대화해 항생제 및 약품사용 제로화를 이룩하겠다.”라고 말했다.
- 완도군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우산업이 완도군의 새로운 소득창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산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 군은 올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13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 출처 : 완도군

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유기농 홍차로 호주에서 최고상 수상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홍차 제품이 세계시장에 통하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차(茶) 소비량 증대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녹차 뿐만 아니라 년중 생산이 가능한 홍차 제조방법을 정립하여 차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차 제조방법 기술교육을 통해 선도농가가 직접 고품질 유기농 홍차를 생산, 해외 유럽시장에 시제품을 보내면서 세계 차 애호가들이 국내산 홍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보성 천보다원 문평식(70세) 사장은 차산업연구소에서 홍차 제조 기술을 이전 받아 금년에 제다한 홍차 제품으로 『2015년 호주』에서 개최한 『세계차 품평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세계 차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국산 홍차의 우수성을 확인 한 이태리·프랑스·영국·체코·태국 등 해외에서 수출 제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우수한 국내산 홍차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한다면 차 소비량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차산업연구소 최정 연구사는 앞으로 유기농 홍차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 마시는 기회를 자주 가져 차산업 활성화와 국제 차시장에서 국내산 홍차 맛을 보이기 시작하면 세계 차 애호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015년 12월 국제 쌀 시장동향

쌀 수급동향

- 15/'16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469.3백만 톤, 재고량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88.4백만 톤으로 전망.
- (생산량) 재배면적(태국·미국·호주 등) 및 단수(태국·인도 등) 감소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 전망.
- (수출량)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전체 수출량 감소 전망.
- (재고량) 인도·미국·태국의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른 전체 재고량 감소 전망.

<세계 쌀 수급동향>

(단위 : 백만 톤, 정곡기준)

구 분	'12/'13	'13/'14	'14/'15 (추정)(A)	'15/'16(전망)		대비(%)	
				11월(B)	12월(C)	전년(C/A)	전월(C/B)
생 산 량	472.8	478.4	478.2	473.5	469.3	-1.9	-0.9
소 비 량	466.2	481.6	482.0	486.2	484.6	0.5	-0.3
수 출 량	39.3	41.7	42.9	41.3	41.3	-3.7	-
재 고 량	110.7	107.6	103.7	91.0	88.4	-14.8	-2.9
기말재고율	23.7%	22.3%	21.5%	18.7%	18.2%	-3.3%p	-0.5%p

<주요국 쌀 수출동향>

(단위 : 백만 톤, 정곡기준)

구 분	'12/'13	'13/'14	'14/'15 (추정)(A)	'15/'16(전망)		대비(%)	
				11월(B)	12월(C)	전년(C/A)	전월(C/B)
인 도	10.9	10.1	11.9	9.0	8.5	-28.4	-5.6
태 국	6.7	11.0	9.0	9.5	10.0	11.1	5.3
베 트 남	6.7	6.3	6.3	7.0	7.1	12.7	1.4
파키스탄	3.6	3.2	4.0	4.5	4.5	12.5	-
미 국	3.4	3.0	3.2	3.1	3.1	-3.0	-

□ 쌀 가격동향

○ 태국산 장립종(100%B 등급) : US\$363/톤(전월 대비 1.4% ↓, 전년 동기 대비 14.6% ↓)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US No.1) : US\$867/톤(전월 대비 0.7% ↓, 전년 동기 대비 12.9% ↓)

<국제 쌀 가격동향>

(단위 : US\$/톤, FOB기준)

구 분	'12.1월	4월	7월	12월	'13.1월	4월	7월	12월	'14.1월	7월	12월	'15.1월	11월	12월
장립종	533	558	585	558	557	550	477	403	436	437	425	423	368	363
중립종	706	681	725	758	705	675	715	640	737	1,102	995	976	873	867

※ 1. 자 료 : Creed Rice / 월 평균 가격

2. 장립종 : 태국산 100% B등급, 중립종 : 미국 캘리포니아산 1등급 파쇄립 4% 이하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 중국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와 MOU 체결

–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에 걸친 전방위적 협력사업 전개로 중국진출 본격화 –

○ 농협은 한·중 FTA 발효를 중국 진출의 기회로 삼고자 2016년 1월 5일 중국 베이징 공소그룹 본사에서 중국의 최대 농업협동조합인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이하 '공소합작총사')와 농산물 수출 등 경제 부문과 금융 부문 등의 상호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 이로써 농협은 공소합작총사가 운영하는 전국 10만여 개의 유통망과 인터넷 쇼핑망을 통해 국산 유자차·김치·포도·쌀·홍삼 등의 농식품과 채소종자를 수출해 현재 연간 1천만불 수준인 대중국 수출 규모를 향후 2020년까지 2천만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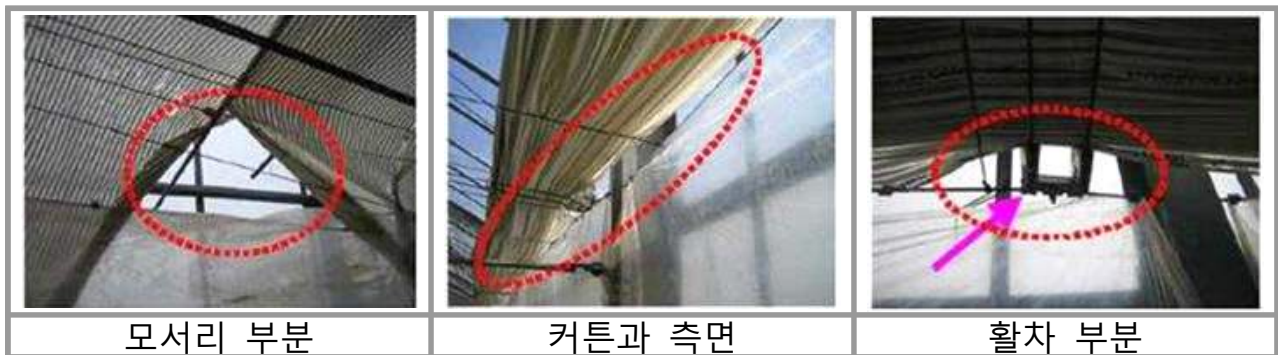
- 이번 MOU는 양국 최대 농업협동조합의 연합조직인 농협중앙회와 공소합작총사 간에 경제, 금융 및 교육지원 사업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 계열사인 NH농협금융지주와 공소그룹 간의 MOU도 함께 진행됐다.
- 공소합작총사는 중국 내 공소합작사(한국의 지역농협)를 대표하는 연합회 성격의 중앙기관(한국의 농협중앙회)이며, 중국 내 최대 농산물 유통그룹으로서 농자재·면화 유통, 국제무역 등의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소합작총사 전(全) 계열사의 총자산은 187조원에 달한다.
- 농협은 이번 MOU를 계기로 ▲농협 농식품 수출 ▲종자 수출 ▲비료원료(요소) 수입, 공소그룹이 중국 내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자문 ▲기술 이전 ▲재무적 지원 투자 ▲합자회사 설립, ▲공소합작총사 임직원의 국내 연수 등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MOU 체결식에 참석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한·중 FTA로 양국 간 국경 없는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한국 농협과 중국 공소합작총사가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공소합작총사가 생산하는 비료원료나 생활물자를 직거래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 간 협력사업은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농협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협중앙회

8.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겨울철 시설원에 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 겨울철 시설원에 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 원인을 분석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비닐하우스는 피복재가 찢어진 곳이 있는지를 살펴 찢어진 곳을 통해 바람이 드나들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 측장과 천장 등은 바람에 의해 펄럭거리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밴드를 팽팽하게 유지하며 틈새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온실 내부 수평커튼, 보온커튼 등은 닫았을 때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온풍난방기 분진 제거 및 부분난방으로 난방비 절감

- 온풍난방기의 버너와 열교환기에 붙은 분진을 제거하면 난방기의 연소 효율이 약 4% 상승하여 열 이용효율이 향상되어 새로운 기술투입 없이도 난방비를 약 18% 절감할 수 있다.
- 온실내부의 공간전체 난방보다 작물체 부위에 내부 터널을 씌워 국부 난방을 하거나 작물체의 온도 민감부(생장점 · 관부 · 뿌리부)에 부분 난방할 때 난방비를 20~30% 줄일 수 있다.

□ 비닐하우스 출입문 및 북측벽면 피복재 설치로 열 손실 최소화

- 자주 열고 닫는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거나 보온 덮개를 덧대어 온실내부의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겨울철 온실 북측 벽면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다겹보온재나 광 반사가 잘되는 알루미늄 보온 피복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온실 출입문 보온덮개 피복

온실 북측 다겹보온재

□ 다겹보온커튼 설치로 난방비 절감

- 온실은 유리나 비닐로 씌워져 있어 이 부분을 통하여 열손실이 약 70%가 일어나므로 온실 내부에 보온력이 좋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 부직포커튼에 비해 난방비를 약 4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 가장자리나 내부의 온도 편차를 줄여 작물을 고르게 키울 수 있다.



비닐 보온터널

다겹보온터널

다겹보온커튼장치
- 단동용 -

다겹보온커튼장치
- 연동용 -

- 온풍기난방기의 덕트는 이중덕트로 하거나 덕트의 토출구 간격을 난방기에서 멀어질수록 촘촘하게 뚫거나 크게 하여 온실 내 기온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작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난방장치 패키지화로 난방비 절감.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풍난방비 변온관리, 다겹보온커튼, 축열물주머니, 지중매설관 등을 적절히 조합해 패키지화하면 난방비를 40~60% 줄일 수 있다.



- 지역에 맞는 적절한 재배작목을 선정하고 재배작형을 선택하는 것도 에너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
- 중부지역에는 상추·시금치 등 저온성 작물을, 남부지역에서는 파프리카·풋고추 등 고온성 작물을 선정하고 토마토·오이 등 과채류의 정식시기를 1~2월에서 2~3월로 잘 조정해도 난방비를 40% 이상 줄일 수 있다.

□ 겨울철 온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 겨울철 난방 시에는 난방기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 보고, 흡산 시에는 바깥의 연료공급 호스에 있는 연료가 얼면 난방기가 멈춰 작물이 얼어 죽게 되므로 연료공급 호스를 보온자재로 감싸 주도록 한다.

- 온실화재는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 온실 면적에 알맞은 용량의 난방기 사용, 온풍난방기 연통과 비닐이 접하는 부분은 열 차단 피복재를 사용, 분전반 내부 먼지는 세정액으로 청소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소화기를 배치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에너지절감형 ‘측면온수커튼기술’

- 시설비 60%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높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채택 -
- ‘측면온수커튼’은 합성수지로 된 일종의 난방배관을 비닐하우스 안쪽 측면 50~60cm 높이에 설치해 순간온수기로 가열한 물을 순환시켜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 기존 온풍기만 가동할 경우에는 하우스 내 온도가 일정치 않고 특히 하우스 구석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낮은 단점이 있었다.
-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하우스 아래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막아주어 구석진 곳의 온도를 높일 수 있어 작물 생육에 훨씬 유리하다.
- 최근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으로 난방비에 유리한 수막재배와 경유 온풍기 등의 재배기술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문제나 과도한 난방비로 농가에서는 겨울철 재배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시설비와 난방비를 절감하고 난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온수커튼기술’을 개발했다.

- 측면온수커튼은 일반 온수배관과 비교해 난방 효율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설치비는 최대 60% 정도 저렴하다.
- 기존의 온수배관 난방방식은 알루미늄관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10a(300평)당 2,000만원 가까이 들지만 측면온수커튼은 800만원이면 가능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측면온수커튼 난방시스템은 대상작물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여름엔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해 냉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수박 2줄기 방임재배' 노동력을 77%나 줄일 수 있는 기술

- 수박재배에서 가장 힘이 들고 일손을 많이 필요로 부분이 결순정리 작업인데, 이 기술은 기존의 '3줄기 유인, 결순 전량 제거' 방식을 '2줄기 유인, 착과 마디까지 주지만 결순 제거' 하는 방식으로 개량함으로써 노동력을 77%나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 기능성 갯기름나물(식방풍)의 유기재배 기술개발

- 새로운 특화작목 식방풍의 유기재배 표준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확대 육성 및 신소득 창출 -

- 전라남도의 갯기름나물(식방풍) 재배면적은 160ha로 전국(176ha)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6.3M/T에 이르고 있다.

□ 쌈채소 생산에 적합한 파종 및 시비방법, 차광효과 구명

- 파종 및 시비 : 10cm 간격 파종하고 혼합 유박퇴비를 시용할 경우 비타민 C 함량 증가

- 차광효과 : 55% 차광 재배할 경우 잎줄기가 부드러워지고 생산량은 비슷함

□ 갯기름나물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한 유기재배 기술개발

- 생육촉진 및 토양 개량 가능한 유기질비료 선발 : 혼합유박비료(표준 대비 11% 수량 증)
- 피복 재배에 의한 잡초관리기술 개발 : 보리짚, 벼짚 이용 잡초발생 70~75% 경감
- 병해충 발생소장 조사로 방제 적기 설정 : 진딧물·파밤나방·점무늬병, 3~5월 집중방제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사시사철 기를 수 있는 벼메뚜기 사육방법 책으로 엮어

- 3년 연구결과 결실 ‘우리벼메뚜기 연중사육과 이용’ 발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잡업연구소는 3년간의 연구결과 우리벼 메뚜기를 사시사철 언제든지 기를 수 있는 연중 사육 기술과 가공이용 방법 등을 수록한 전문 기술서적을 발간 하였다고 말했다.
- 그동안 벼메뚜기 연중사육 기술에 관한 책자가 없어서 벼메뚜기를 사육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농가들이 사육지침서를 애타게 기다려 왔는데 국내최초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농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벼메뚜기는 자연환경에서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붙잡아 식용으로 이용했으나 2013년 인공적으로 빠른 부화기술을 개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삼아 책자에서는 비닐하우스 연 2세대 사육과 패널 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 4회 이상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이용과 판매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은 이 책자를 도내 곤충사육 농가가 기술을 빨리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배부하고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곤충잡업연구소 강성주 연구사는 “전남 곤충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며, 앞으로 메뚜기목 곤충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기술개발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9. 정책 동향

◆ 전남도, 농업 6차산업화 수출기반 확대 총력

- 농식품국·농기원 업무보고...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나서기로 -

- 전라남도는 6일 이낙연 도지사와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새해 업무보고를 갖고, 생산비 절감과 6차산업화,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날 보고회에서 농림축산식품국은 '생명농식품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저비용고소득 친환경농업 육성 ▲첨단 수출농업 기반 구축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한 10개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을 정부 지원이 끝난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도 도비로 50%를 계속 지원하고, 친환경 장려금도 품목별 재배 난이도에 따라 과수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채소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 유기농업 실천도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소비자 체험형 유기농 생태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벼 경영안정 자금 57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 한중 FTA 발효와 1가구 2자녀 정책 채택 등 중국의 변화를 농축산물 수출 확대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채류 수출전문 첨단 온실'을 조성한다. 상반기 중 쌀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김치의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위생기준에 맞는 수출 전용라인 설치 등 수출 기반을 확충기로 했다.

-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확대를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도 지난해 506개 마을에서 759개 마을까지 확대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체험마을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경관농업 활성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18년까지 전문 인력 1천300명을 육성하고, 우수 청년 인력의 창업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귀농·귀촌인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도권 도시민 등 권역별 맞춤형 유치활동도 전개한다.
- 또한 곤충·말·흑염소 산업을 축산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며,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국도 77호선을 '정도(定道) 1000년 기념 가로수길'로 조성하고, 시군도와 마을 진입로까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다.
- 농업기술원은 주요 작목 생산비 4% 절감을 위해 기술 개발 17작목, 시범단지 38개소 육성,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 실용화,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 공급을 중점 추진한다. FTA 체결 확대와 온난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영농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를 추진하고,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업무보고에 이어 토론시간에는 이기웅 정책자문위원회 농업분과 위원장,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문승주 전남대학교 교수, 서범석 한국온실연구소장, 박민재 (주)한되 대표,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환황해연구센터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낙연 도지사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생산비 절감, 유통가공을 포함한 6차 산업화,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1.7)에서 심의확정 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은 농업의 첨단 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농업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스마트 팜, 농기계 개발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등,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신선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동·식물 전염병(구제역·AI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정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제공, RD 지원, 투·융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 농식품부는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16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실행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전국 30만 명 농업인 대상 실용 교육

- 2월 28일까지 스마트팜 등 현장에 유용한 과정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전국의 농업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새로 개발한 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한·중 FTA 등 농정 시책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교육은 2016 농식품 정책 방향을 비롯해 스마트팜, FTA 대응 농업 정책, 가축 방역, 농업 관측 등 국정과제와 바뀐 농업 정책과 연계해 이뤄진다.
- 특히,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FTA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대책과 새로 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 또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와 가축 방역 동영상 상영, e-러닝 운영, 홍보 책자 배부 등 입체적 교육을 할 계획이다.
- 교육 과정은 크게 영농 기술, 농촌 자원, 농업 경영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품목별 핵심 농업 기술과 농업 경영·마케팅 등을 이론과 현장 실습, 토론,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한다.

- 올해 교육은 지난해 교육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교육 기법을 보완해 소그룹·대화식 학습·영농설계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농업 기술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번 교육에 참가한 충남 예산군 사과발전연구회 정연순 농업인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농업 정책과 과수 화상병 예방법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알게 돼 사과 농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 시군별 교육 일정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http://hrd.rda.go.kr>)을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과정별 세부 일정을 알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박공주 과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한·중 FTA 발효 등 변화된 농업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농업인 요구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배 주산지 대상, 순회사랑방 기술 교육 나선다

- 새 품종 소개·재배 시 어려움 해결 중점적으로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배 주산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사랑방’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 전남 나주(1월 7일)를 시작으로 전북 익산(1월 13일), 충남 천안(1월 14일), 전남 순천(1월 19일), 울산(1월 22일), 경기 안성(2월 1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순회사랑방 교육은 새로 개발한 기술을 개발자가 현장에 소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800여 명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이 교육을 통해 수출 배의 합격률을 높이고 국내 육성 품종의 보급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
- 2016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겨울철 가지 치기, 국내 육성 새 품종 특성과 재배 기술, 친환경 토양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이다.
- 특히, 이번 교육의 핵심과제는 단조로운 품종 구성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품종 소개와 재배 시 주의할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최근 나주·울산·천안 등 배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새 품종의 배 특화전략 우수 사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개함으로써 배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김명수 소장은 “이번 교육은 배 주산지역 농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 고품질 과일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교육생들에게 현장의 문제와 미래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7년 신규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10. 해외 농업정보

◆ 미국, 2016년 식료품 소매시장 전망

-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모두 활용하는 옴니채널 쇼핑트렌드는 식료품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 올.
-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2016년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매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에 친화적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와 소규모 가족의 증가로 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매장의 식료품 매장이 많아질 것이며, 전통적 형태의 대형 매장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판촉 활동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옴니채널 쇼핑 트렌드는 식료품 시장에도 혁신을 초래함.
-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책과 음악을 휴대전화에 항상 소지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 점차 사라지며, 과거 구매내역을 통해 유사제품을 추천받고 더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쇼핑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짐에 따라 쇼핑을 '가는 것'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임.
-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식료품 쇼핑에서도 온라인 쇼핑과 매장 방문의 쇼핑 이점을 모두 누리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닐슨(Neilson)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의 30%가 온라인 주문 후 집으로 배달받는 방식의 식료품 쇼핑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 방문해 픽업하는 방식은 밀레니얼세대의 17%가 현재 이용하고 61%가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마트, 페어웨이 등 일부 대형 식료품 소매점이 온라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고 점차 더 많은 오프라인 식료품 소매점이 온라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함.
-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258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 중 9%를 기록하였으나, 대한민국 수입액은 약 700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본사를 두고 텍사스주와 멕시코 지역에 37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 H-E-B는 지난 11월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를 개설함.
- 아이오와·일리노이·캔사스·미네소타 등 미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240 매장을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 Hy-Vee는 12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시작함.
- 식료품 소매점의 자체적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 경우 인스타카트(Instacart)와 같은 배달전문 앱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를 제공함.
- 모바일 앱 인스타카트는 홀푸즈·코스코 등 약 65개 식료품업체와 파트너가 되어 온라인 주문을 받고 퍼스널쇼퍼가 주문한 물건을 식료품 매장에서 픽업해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식료품 매장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음.

- Marsh Supermarkets 등 일부 슈퍼마켓 체인은 매장 내 블루투스 송수신기기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제품과 관련한 광고, 쿠폰, 제품정보 등을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더 많은 매장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전자선반라벨(Electronic Shelf Labels)을 활용하여 가격, 영양정보 등 다양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식료품점이 더 많아질 것임.
- 현재 켄터키주 콜드스프링에 위치한 크로거 매장의 포장식품 판매대에는 약 2000개의 전자선반라벨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임.
-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확대로 식품의 포장단위, 포장 방법 및 기술 변화 등이 요구될 것임. 이에 배송서비스에 적합한 소형단위 포장, 공간 효율적 포장, 냉·보온 식품포장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화되는 식료품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성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욱 간단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품 성분, 친환경성, 영양성분 등 가격 이외의 요소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분쇄육에 대한 이력추적제 실시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분쇄육 식중독의 원인을 분석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함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과거 식중독 조사를 바탕으로 생 분쇄육 가공품을 제조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염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실제로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된 햄버거 분쇄육의 판매가 1994년부터 금지됐지만, 매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O157'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음.
- 과거 햄버거에 들어가는 분쇄육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비위생적이며 불안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
- 특히 분쇄육은 여러 개의 도축장에서 가져온 다른 부위의 고기를 섞어 제조하는 과정에서 'O157'균 감염에 쉽게 노출됨.
- 그러나 분쇄육이 'O157'균 등 식중독 감염 노출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음.
- 2011년 미국 북동부 지역 일부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자, 시민단체와 언론은 납품업체의 기록만 있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이에 미국 내에서도 분쇄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음.

- 소매점에서 여러 원료를 섞어 분쇄육을 만들었으나 이에 대한 원료 기록이 없는 경우 식중독 조사에 어려움을 겪음.
- 금번 새롭게 발표된 요건은 과거 2014년 8월에 발표한 신속한 전후추적 절차를 보완함
- 금번 신규 최종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검사국은 쇠고기 생육을 분쇄하는 공인 시설과 소매점 일체는 다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함.
- 로트별 쇠고기 생 분쇄육에 사용한 원재료 납품업체 번호, 납품물 로트번호 및 생산일, 납품물 명칭(생산로트 1건에서 다음 생산로트로 이월된 쇠고기 부위 및 물질), 쇠고기 생 분쇄육의 로트별 생산 일시, 분쇄기기 및 기타 식품 접촉면의 세척·소독 일시 기록 등임.
- 소매점에서는 여러 출처의 쇠고기 절단육을 혼합하여 생 분쇄육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금번 최종안을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분쇄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식품안전검사국은 2014년 7월 22일자로 공인 시설과 소매점은 납품 업체와 원재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안)(79 FR 42464)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안하여 금번 기록유지에 관한 규칙을 최종 마무리함.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1. 1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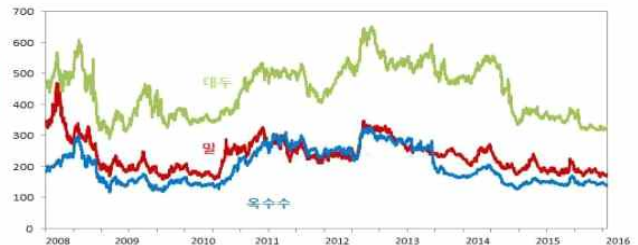
숫커버링세 속 밀 가격 급등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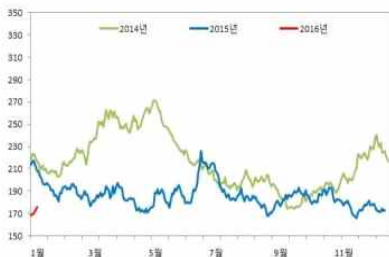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1.8)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2)	2015 평균
밀	175.78	▲2.1%	174	186
옥수수	140.55	▲1.1%	145	148
대두	323.12	▲0.3%	323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1월물) 청산가격임.

단위: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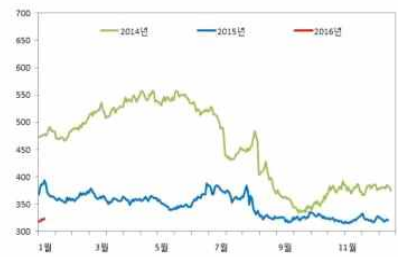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초 하락한 가격으로 투자자들의 숫커버링세가 상당히 물리며 상승세가 지속됨. 또한 세계주식시장 지원 강화와 대부분의 원자재를 압박하던 거시경제요소의 우려의 완화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짐.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차주 곡물 수급 보고서 발표 전까지 매도 포지션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연가 매입과 세계 주식시장 지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반등함. 거래자들은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강화로 미국 수출 판매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풍작 또한 가격 상승세에 제한을 줄 것으로 예상함. 차주 USDA 보고에서 옥수수 재고량은 역대 최대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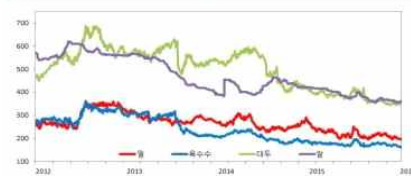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정부의 곡물 보고서 발간 전 투자자들의 스캐어포지션으로 기술적 매입세와 숫커버링세가 물리며 강보합 마감함. 또한 중국 경제 우려 완화 및 브라질산 대두 생산 감소 전망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중국은 2015/16년 대두를 8천만 톤 수입할 것이라 소식통은 전망했고 있는 2014/15 때보다 2.1% 상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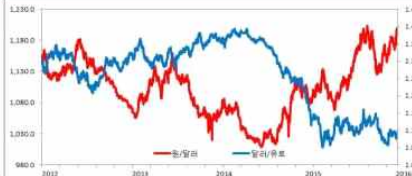
관련동향

- 시장 환기할만한 뉴스 제한으로 보합세
-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우려,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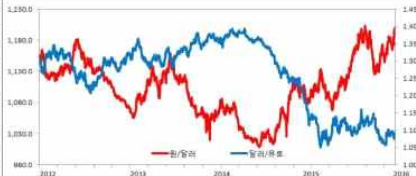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국제유가 (US\$/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97	▲1.0%		원/달러	1,199.7	▲1.4%
	옥수수	163	-		달러/유로	1.0922	▲0.5%
	대두	353	-		WTI	33.16	▼0.3%
	쌀	361	-		Dubai	29.11	▲4.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7(수출가격), '16.1.8(환율), '16.1.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 1. 4.부터 5. 2.까지(120일간)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 농업인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
 -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
-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
 -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폐화석)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 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일제 실시

- 전남농기원, 도내 농업인 4만여명 대상으로 실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월 5일부터 2월말까지 도내 21개 시·군에서 농업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국정과제 및 변화된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지역별 특화품목 재배기술 등 영농기술분야와 식품자원개발 및 가공, 6차산업 활성화 등 농촌자원분야, 농업경영·마케팅, 농산물 상품화 등 농업경영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지난 12월 1~2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 189명을 대상으로 농촌자원·채소화훼·과수특작·축산·농촌자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현장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500개소에서 농업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전남도민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창옥 농업교육과장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한해 농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농업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과거·현재·미래가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6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옛 농촌진흥청 본관동, 수원시 권선구)에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농업기술역사관’이 문을 연다.
- 이곳은 200여 년 전 조선 정조(正祖) 임금의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펼쳐 모범적인 이상 도시를 구현한 데 이어 1962년 농촌진흥청을 설립한 자리다.

- ‘농업기술역사관’은 수장고를 포함해 총 755m² 규모이며, 총 4개의 전시 구역과 영상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실물 모형·영상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발전해 온 과정과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를 보기 쉽게 연출했다.
- ‘제1구역(농업 기술의 첫걸음)’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농업 기술·문화 연대기를 살펴볼 수 있다.
- ‘제2구역(수원, 농업 혁신의 뿌리)’은 농업에 대한 정조의 업적과 수원에 자리 잡은 농촌진흥청의 태동기를 다뤘다. 특히, 영상관에서는 씨앗 또는 알을 상징하는 타원형의 조형물에 영상을 비춰 농촌진흥청의 농업 혁신 활동 상황과 우리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 ‘제3구역(농업 기술의 열매)’에서는 농촌진흥청 발족 이래 획기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 성과를 농업 기초 기반·식량·원예·축산 등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 ‘제4구역(농업이 열어가는 행복과 미래)’에서는 농업이 첨단 과학 기술을 만나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미래 농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농업기술역사관’은 무료 관람이며, 주중(오전 9시~오후 6시)에 개인 또는 단체 관람이 가능하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031-695- 4141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앞으로 ‘농업기술역사관’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68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